

우즈베키스탄 은행산업 현황

(2013. 10. 23)

타슈켄트 사무소

1 | 개 요

- 우즈베크 은행산업은 금융부문 총자산의 약 9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대외의존도가 낮아* 글로벌 리스크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음.
 - * 2011-2012년 기간중 우즈베크 은행들의 외국은행앞 부채는 전체의 약 6%에 불과
- 정부, 은행 및 경제부문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, 정부는 은행을 통해 경제개혁 및 투자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자원을 배분
- 한편, 우즈베크 은행산업은 최근 수년간 연간 8% 내외의 높은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
 - 은행 총자산 및 대출규모가 연간 약 30% 이상 대폭 증가
 - 총자본금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폭적인 증자에 힘입어 매년 20% 내외 확대
 - 자본적정성비율(Capital Adequacy Ratio)도 국제기준인 8%를 3배 이상 초과한 약 24% 수준에 달하고 있음.

<우즈베크 은행산업 주요 지표>

(조 슝)

구 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.6월 ^e
총자산	20.7	27.5	35.7	40.0
자본금	4.1	5.3	6.2	6.3
대 출	11.5	15.7	20.4	21.3
CAR Ratio	23.4	24.2	24.3	24.3

(자료 : KDB Uz, S&P, Moody's, IFC 등)

* 환율 (13.6.30자) : Soum 2,093.10 / USD 1

2 | 정부의 은행산업 개혁 추진현황

- 우즈벡 정부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마련 등 은행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 중임.
- 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보
 - 정부 관료의 상업은행의 경영진 임명, 영업활동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요구 등을 금지하는 법 시행(2012년 12월)
- 예금자 보호
 - 예금보험기금(Deposit Guarantee Fund) 설립(2002년 4월)
 - 상업은행 예금에 대한 보장 시행(2009년)
- 은행의 자본금 확충
 - 상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“은행 자본확충 및 투자활성화 유도 확대방안” 도입(2007년 7월)
 - 자본 확충을 위해 세후 이익의 30% 이상을 적립
 - 정부 투자 프로그램의 우선투자분야에 대한 현대화, 기술혁신 등을 위해 3년 이상 대출시 관련수익에 대한 면세(2011년까지)
 - 신규 발행주식의 25% 이상 상장 의무화
- 은행의 투명성 및 국제신인도 제고
 -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11-2015년 프로그램 도입 및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제고방안 마련(2010년 11월)
 - 자산의 질 제고, 국제기준 부합되는 평가시스템 도입
 -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등급 제고 등

3 | 은행산업 구조 및 영업현황

- 우즈벡 은행산업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2단계로 구분

- 중앙은행(CBU; Central Bank of Uzbekistan)는 통화관리당국으로 자국통화의 안정 외에 다음의 기능을 수행
 - 통화, 신용 및 외환정책 수립 및 실행
 - 결제시스템 관리
 -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및 규제
 - 재무부와 공동으로 정부예산 관리
 - 외환보유고(외환, 금 등) 관리

- 우즈벡 상업은행은 총 29개로 국영은행(state-owned bank), 합작은행(joint-stock commercial bank), 민간은행(private bank) 및 외국계은행(foreign investment bank)으로 구분
 - 국영은행(State-owned Bank) : 정부가 대주주로 지분 50% 이상을 직접 보유한 은행
 - NBU, Asaka bank 및 Halk Bank (3개 은행)
 - 합작은행(Joint-Stock Commercial Bank) : 정부가 직·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
 - UzPSB, Ipoteka Bank, Agro Bank, Qishloq Qurilish Bank, Mikrokredit Bank, Ipak Yuli Bank, Asia Alliance Bank, Hamkor Bank, Kapital Bank, Turon Bank, Aloqa Bank, Credit Standard Bank, Samarkand Bank (13개 은행)
 - 민간은행(Private Bank) : 개인 또는 법인이 대주주인 은행
 - Trust Bank, InFinBank, Orient Finance Bank, Davr Bank, Turkiston Bank, Universal Bank, Hi-Tech Bank, Ravnak Bank, Amir Bank (9개 은행)
 - 외국계은행 (foreign investment bank) : 외국인이 대주주인 은행
 - KDB Bank Uzbekistan(한국), Savdogar Bank(독일), UT Bank(터키), Soderat Bank(이란) (4개 은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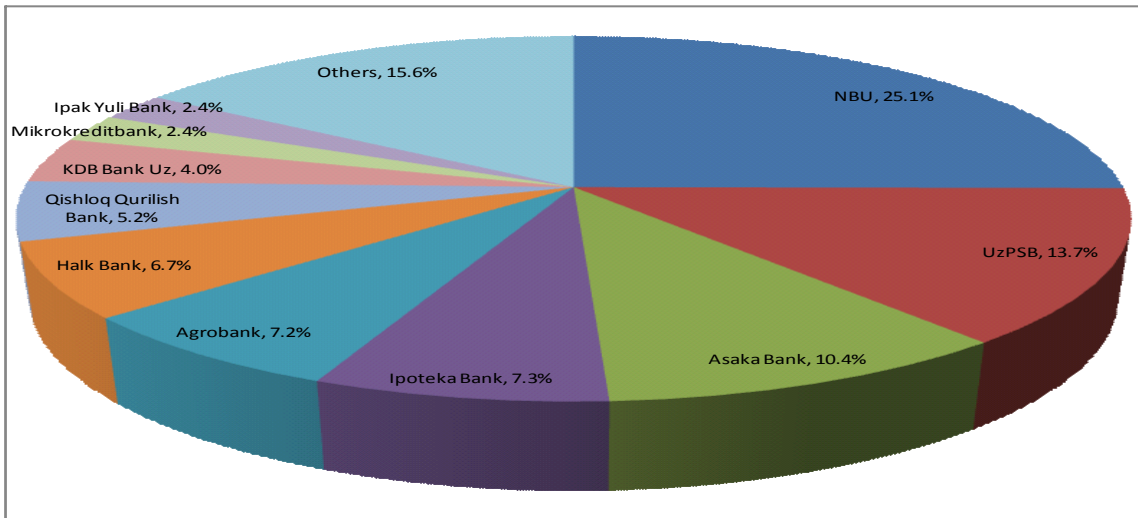
- 우즈벡 은행산업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며, 은행별로 지원분야가 특화되어 있음.

- 국영은행 및 정부가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합작은행이 전체 자산의 90% 이상을 차지

○ 민간은행 및 외국계은행의 시장지배력은 미미한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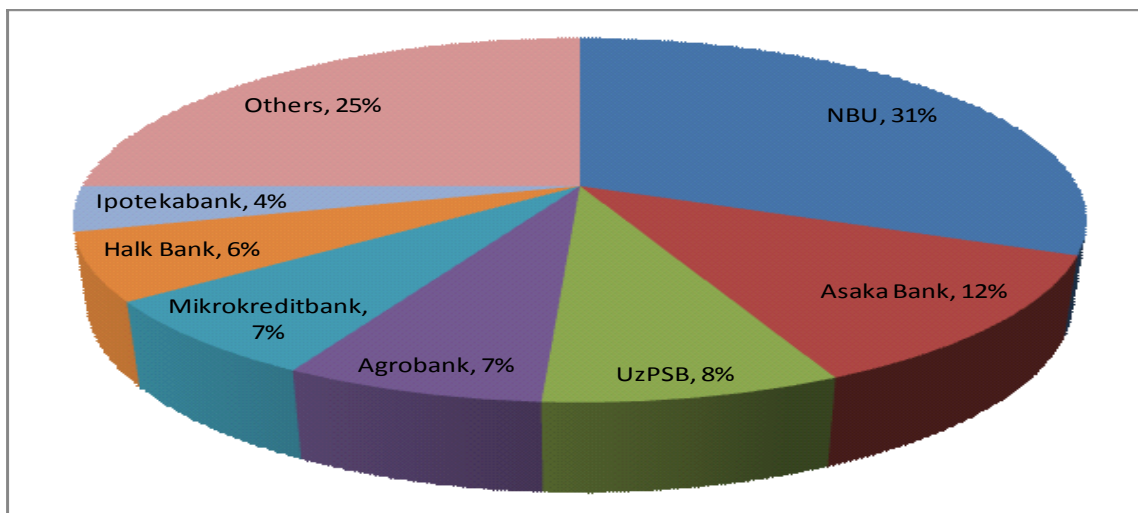
- 자산 기준으로 볼 때, Trust bank(시장점유율 1.8%)와 KDB Uzbekistan(시장점유율 4.0%)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은행 및 외국계은행이 시장점유율은 1% 미만에 불과

< 은행별 자산기준 시장점유율('13.6월) >



○ 자본금 기준으로 볼 때도 정부가 직·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위 5개은행이 전체 자본금의 약 65%를 차지

< 은행별 자본금기준 시장점유율('09년말) >



○ 은행별로 주요 지원분야 및 산업이 특화되어 있음.

- 국제업무(NBU), 자동차(Asaka bank), 건설·산업(UzPSB), 농업(Agrobank), 주택(Ipoteka bank), Retail부문(Halk bank) 등

4 | **외국금융기관 진출현황**

- 현재 우즈벡에 영업점 형태로 진출해 있는 외국계은행은 KDB Bank Uzbekistan(한국), Savdogar Bank(독일), UT Bank(터키), Soderat Bank(이란)의 4개 은행이 있음.
- 또한, 대표사무소로는 National Bank of Pakistan(파키스탄), Commerzbank AG, Landesbank AG(이상 독일), JP Morgan Chase Bank(미국), 수출입은행 및 신한은행(이상 한국)의 6개 은행이 진출
- 그 외에 국제금융기관으로는 ADB, World Bank, IFC, IsDB가 진출

5 | **시사점**

- 우즈벡 은행산업은 실물경제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꾸준한 성장세에 있으나, 아직 러시아, 카자흐스탄, 우크라이나 등 타 CIS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보다 폐쇄적임.
- 최근 정부 주도하에 은행산업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나, 정부의 간섭, 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도, 일부 국영은행의 독과점, 정부의 엄격한 외환통제, 국제기준에 맞는 규범 적용 등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
- 향후 우즈벡 은행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, 현재 추진중인 은행산업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